

PEOPLE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농협 광주검사국 감사업무 컨퍼런스 '역량 강화'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은 최근 농협 광주본부 2층 회의실에서 광주 내 농협 상임감사 및 감사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농협의 경영안정 지원과 선제적 전략감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사고사례 전파, 감사기법 공유, 감사업무 담당자 간 상호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상호토론 시간에는 △회계상과 점검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부담업무 거절 문화 정착 등 사고 예방과 감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문홍식 광주검사국장은 "농협 감사조직은 항상 농·축협의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조합원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농협 구현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신대 산림경영학과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선정

동신대학교가 산림학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전주권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동신대에 따르면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서울, 대전, 세종, 평택, 전주 등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권역별로 5개 팀씩 전국 총 25개 팀(125명)을 선발했다. 정원 분야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각 팀에는 전문 정원 작가가 매칭돼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 멘토링이 제공된다.

김민희 산림경영학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정원 조성에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을 구현하며 생태적 감수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안도 소안도서 의료봉사 실시

광주기독병원선교회는 지난 5월 30~31일 안도 소안도 소안중앙교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를 포함한 직원 21명과 CMF(한국누기회) 의과대학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242명의 진료와 736건의 검사, 미용봉사를 진행했다. 혈액검사서에서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는 주민에게 검사 결과지를 전달. 정밀한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광주기독병원선교회 관계자는 "주민에게 받은 감사의 인사말과 환한 미소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양 ‘두 번째 삼둥이’ 축하…다자녀 가정 지원 최선”

출생 100일...정인화 시장 방문
익명 후원금·육아용품 등 전달
18세까지 2억8000만원 지원도

광양시는 2일 관내에 거주하는 삼둥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번째 삼둥이 가정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뜻깊은 행사로, 정인화 시장은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 삼둥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손 편지와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광양시 보건소는 백일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으며, 이광용 DYE 대표이사도 함께 방문해 삼태아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후원하며 기쁨을 함께했다.

또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익명의 후원자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100일을 맞은 두 가정에 각각 5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광양시는 2일 관내에 거주하는 삼둥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인화 시장은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 삼둥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손 편지와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삼둥이 가정은 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약 17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출생축하금 3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800만원 △부모급여 5400만원 △아동수

당 288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200만원 △전남도·광양시 출생기부수당 1억2960만원 등 삼태아 3명 기준 18세까지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삼둥이가 광양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라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새 수장에 김허정씨 선임 시민 프로그램 강화...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세계화 주력

광주시예술 분야 중 미디어아트를 망라해 디지털 아트의 컨트롤러와 같은 역할을 해온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이 제3기 수장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허정 선임 센터장(사진)은 임종영 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 초대 센터장 임기를 맡아 수행한 가운데 분리된 이후 이경호 전 센터장에 이어 두 번째 수장에 해당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허정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선임돼 2일 임용장을 받고 근무에 돌입함에 따라 지평의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2년 동안 지평을 이끌 김 선임 센터장은 디지털아트 컬처랩 고도화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협력 확대, 시민교육·참여 확대 및 정의벨트 활성화, 전문가 양성 등에 노력을 해나갈 복안이다.

디지털아트 컬처랩 고도화를 위해 AI 창작·제작 연계와 생성형 AI 아트워크 제작 워크숍, 대상숍 랩 운영, 지역대학·창작소와 연계한 교육, 워크숍

및 오픈스페이스 강화 창작, 발표, 산업 연계까지 전 주기적 구조와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AI와 예술의 융합을 꾀하면서 25개 창의도시 대상 국제 공동 프로젝트 운영과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신설 등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김 선임 센터장은 "학술연구 교수로 1년 동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와 광주인문자원 및 도시예술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지역미디어 아트를 조망해보는 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도시로서의 목적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미디어아트플랫폼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살펴보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탤까 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담양-순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고령화·노인복지 분야 공동 대응

정철원 담양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며 상호 협력을 굳건히 다졌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양 지자체 군수와 공무원들이 함께해 지역을 향한 따뜻한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두 지역은 그동안 담양호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수별 철거 등 광역 경계를 넘어서 협업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다.

곡식·구례군과 함께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구곡순담 정기회의에서는 장수노인 대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예측 서비스 도입, 노인복지정책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제 어르신 체육대회, 100세 잔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군과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 지자체로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이웃 정성 담은 간식 꾸러미 나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최근 지역 내 중합복지관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간식꾸러미 나눔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달된 간식 꾸러미에는 썩은시영3단지 입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이 포함돼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사전에 진행된 제빵 체험 프로그램에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고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완성된 빵은 간식 꾸러미에 포함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 및 보호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나눔 활동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기관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고, 아동들에게 기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김승남 사장은 "입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손수 만든 빵이 아동들에게 전달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미주사무소, LA 한식요리대회서 남도 맛·매력 알려

수출 농수산물품 시식·주요 관광지·남도음식 홍보로 호평

전남도 미주사무소(소장 문창숙)는 최근 LA 한국문화원이 허버 칼리지와 개최한 '2025 한식 요리 경연대회(Taste of Korea)'에서 전남 농수산물품과 주요 관광지, 남도음식을 홍보했다.

2025 한식 요리 경연대회에선 전통 장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현지에서 전통 장 문화의 우수성과 케이(K)-푸드로 알려진 한식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대회 참가자와 참관객 등에게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 전남 산철판매장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조미김, 모듬 해초, 배 주스, 유자 주스, 오징어 튀김, 누룽지 스낵, 약과 등 시식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 주요 관광지와 남도 음식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지역 2024년 대미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1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3.8% 늘었다. 이어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수출액은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미국인에게 전남을 적극 홍보해 관세로 어려움을 처한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기업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서구,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 김기강 광주 서구청장이 2일 서구 농성1동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 약자 진입 가능 여부와 투표소 진입 동선의 장애물 및 협소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동신대 학술문화정보원 '김겨울 작가와의 만남' 성료 동신대 학술문화정보원(원장 허용무)은 최근 중앙도서관 1층 동강출에서 '김겨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동신대